

초등학생의 일반창의성, 언어지능, 국어성적과 언어창의성 간의 관계연구

박정환¹, 홍미선¹, 유경훈^{2*}
¹제주대학교 교육학과, ²송실대학교 교육대학원

The Relationship Among Domain-General Creativity, Linguistic Intelligence, Korean Language Grade and Linguistic Creativity of Elementary School Student

Park, Jung-Hwan¹, Hong, Mi-Sun¹ and Lew Kyoung-Hoon^{2*}

¹Dept. of Education, Jeju National University

²Graduate School of Education, Soongsil University

요약 본 연구는 초등학생들을 대상으로 일반창의성, 언어지능, 국어성적이 언어창의성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고자 실시되었다. 서울시에 위치한 3개의 초등학교 4학년 338명을 대상으로 검사를 실시하였다. 사용된 검사는 다중지능검사 중 언어검사와 일반창의성 검사인 TTCT이며 국어성적은 학교에서 실시한 중간, 기말시험 성적을 사용하였으며 언어창의성은 에세이쓰기를 실시하였다. 수집된 자료는 SPSS 18.0을 활용하여 상관분석, 회귀분석, 분산분석을 실시하였다. 연구결과를 살펴보면 언어창의성은 일반창의성 전체점수에서 상관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하위요인에서는 제목의 추상성과 정교성에서 유의미한 상관이 나타났다. 언어창의성은 국어성적과는 정적상관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언어지능과는 상관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회귀분석을 실시한 결과 언어창의성은 일반창의성 가운데 제목의 추상성 요인이 가장 잘 설명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제목의 추상성 수준에 따라 언어창의성 평균은 의미있는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investigate the relationship among domain-general creativity, linguistic intelligence, Korean language grade and linguistic creativity of elementary school student. And to confirm the relative predictive power of domain-general creativity variables in predicting elementary school students' linguistic creativity. The instruments used in this study were 'TTCT', 'Essay writing' and 'Linguistic intelligence' and school grade of Korean language. Self-reported response data on these instruments from 338, 4th grade elementary school students in Seoul were analyzed. The data were analyzed with descriptive statistics, Pearson correlations, multiple stepwise regression analysis and ANOVA by using SPSS 18.0. The major results of this study were as follows; First, the correlations among domain-general creativity, Korean language grade and linguistic creativity were significant. Second, Abstractness of title were the best predictor of linguistic creativity in elementary school students.

Key Words : Domain-general creativity, Linguistic intelligence, Korean language grade, Linguistic creativity

1. 서론

점차 다양하고 빠르게 변화하는 현대사회에서 기존의 이 논문은 2013학년도 제주대학교 학술진흥연구비 지원사업에 의하여 연구되었음

틀을 벗어나 인식과 발상의 전환을 통해 다양한 것에 대한 개방성, 유연성, 문제에 도전하는 용기 등 새로운 생각이나 산물을 창조해 내는 창의성에 대한 관심이 점점 더

*Corresponding Author : Lew Kyoung-Hoon(Soongsil Univ.)

Tel: +82-10-2277-1666 email: lewkh@ssu.ac.kr

Received July 23, 2013

Revised (1st August 3, 2013, 2nd August 6, 2013)

Accepted August 7, 2013

커지고 있다[1]. 이러한 사회적 관심 속에서 그 어느 때보다 교육현장에서 실시되고 있는 창의성 교육에 대해 주목하고 있다. 교육현장은 예비 사회인을 길러내는 교육기관으로서 국가와 사회에서 필요로 하는 창의적인 인재를 양성해야 한다는 과제에 직면하고 있다.

Guilford[2]는 창의성의 핵심요인으로 ‘확산적 사고’를 제안하고 확산적 사고란 상상력을 동원하여 다양하면서도 많은 해결책을 만들어내는 사고라고 주장하였다. 그리고 확산적 사고의 주요인으로 되도록 많은 답을 산출하도록 하는 유창성, 다양한 범주의 답을 산출하도록 하는 융통성, 남과 다른 독특한 답을 산출하도록 하는 독창성을 제안하였고, 이러한 요인들을 통해 창의성을 측정하고자 하였다.

창의적 사고능력에 깊은 관심을 둔 Torrance [3]는 오랫동안 창의적 사고의 발달 경향을 연구하여, 다양한 창의적 사고 능력들의 핵심적인 요인을 확산적 사고로 보고 이러한 사실을 바탕으로 창의성 검사도구인 TTCT(Torrance Test of Creative Thinking)를 개발하였다. 전 세계적으로 아직까지 가장 신뢰롭게 사용되는 검사는 Torrance의 TTCT이며 학계에서 가장 폭넓게 사용되고 있음을 많은 학자들이 밝히고 있다[4-7].

인간의 심리적인 특성을 다루는 연구는 이러한 특성이 영역 일반적이거나 영역 특수적인가에 대하여 항상 다양한 주장이 제기된다. 창의성은 최근에 관심이 되고 있는 인간의 심리적 영역으로 창의성의 영역특수성과 영역일반성을 논하는 것은 매우 필요한 일이라고 할 수 있다. 영역일반성이란 어느 한 영역에서 그러한 특성이 나타난다면 다른 영역에서도 그러한 특성을 보인다는 것이다. 즉, 언어영역에서 뛰어난 창의적 성취를 보이는 사람은 음악 영역에서도 창의적 성취를 보일 수 있다는 것이 영역일반적인 입장의 설명이다 반대로 영역특수성이란 어느 특정한 영역에서의 특성은 그 영역에만 한정되어 나타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 언어영역에서 높은 창의적 성취를 보이더라도 음악영역에서는 성취가 높지 않을 수 있다는 것이다.

한 인간이 창의적이 된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지에 대한 고민을 할 수 있는 창의성의 영역일반성과 영역특수성에 대한 입장의 차이를 규명해 보는 것은 현실적인 교육의 문제이기도 하다. 창의성에 대한 영역성의 연구는 인간의 이해, 연구방향과 측정의 기준, 현장에서의 교육과 실천에 직결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8]. 영역특수성의 입장이 받아들여진다면 구체적인 학문내용을 통해 다양한 영역특수적 사고를 가르치는 것이 타당하며 영역일반성이 받아들이는 입장이라면 영역일반적인 사고기술이 교육되어야 할 것이다. 인간심리의 중요한 부분으로 제

기되는 창의성에 대한 이러한 논점은 인간심리 이해의 본질적인 이해와 연결되어 있다[9].

많은 창의성 연구자들은 영역일반성을 가정하고 연구를 하고 있으며, 창의적인 사고능력과 창의적인 성향에 관한 많은 연구들은 모든 창의적인 인물들이 지니고 있는 공통적인 특성을 모으는 연구라는 것이 이를 증명해 준다. 특히 위대한 창의적 업적을 나타낸 레오나르도 다 빈치, 미켈란젤로 등은 다방면에 창의성을 드러낸 인물의 대표라고 할 수 있다. Guilford[10]가 창의성의 중요성에 대한 언급을 실시한 이후 창의성을 영역일반적인 것으로 받아들이도록 한 연구는 TTCT와 같은 영역일반적인 측정도구를 대표적으로 들 수 있다. 1960년대 초 Osborn에 의한 CPS(Creative Problem Solving)는 어느 영역에서나 공통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문제해결 과정의 개발에 중점을 두었다고 할 수 있다.

한편 Bear[11]은 영역특수성을 강조하는 입장이며 영역특수성을 과제특수성으로까지 발전시켜야 한다고 주장한다. 언어창의성, 수학창의성이 영역특수성 차원에서의 분류라며 언어창의성은 시창의성, 소설창의성 등이 세분화된 과제창의성이라고 할 수 있다. 그가 영역창의성 내에서 과제창의성을 주장하는 이유는 다양한 수행과제를 대상으로 평가한 창의성 점수 간 상관관계가 낮다는 것이다. 많은 선행연구들을 분석한 결과 상관관계수가 .05정도로 매우 낮아 영역일반성을 찾아보기 힘들다는 것이다. Han과 Marvin[12]은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이야기꾸미기, 풀라주, 수학문제 만들기 등의 영역특수적 창의성 수행과 일반적 창의성 사고력의 상관관계를 분석한 결과 창의성이 영역특수적이라고 주장하였다.

김영채(2012)는 창의력이 영역보편적인지 특수적인지 TTC의 도형검사와 언어검사를 실시한뒤 상관관을 보았는데 두 검사가 비교적 독립적이라고 하였으며 이는 Sternberg[14-15]의 연구에서 일반적인 창의적 능력이 존재한다고 밝힌 것과 유사한 결과를 제시하였다.

언어는 우리의 사상을 표현하는 상징매체로 모든 문화권에서 일정 규칙에 따라 소용되는 의사소통 체제라고 할 수 있다. 듣기, 읽기, 말하기, 쓰기로 분류되는 활동 중 말하기와 쓰기는 표현언어기술이라고 할 수 있다. 인간의 통합적인 사고는 언어를 통해서 이루어지며 인지적인 성장과 함께 언어발달을 하게 된다. 언어창의성 평가에 관한 연구를 실시해온 학자[16, 17]들에 의하면 언어창의성을 평가하기 위하여 ‘이야기 만들기’과제를 실험에 사용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림을 보여주고 그림에 대하여 한편의 이야기를 작성하는 방법이다. ‘시 창작’이나 ‘이야기 꾸미기’도 언어창의성 평가에 자주 사용되고 있으며 문화적인 표현능력이 언어창의성평가의 주를 이루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다중지능 이론에 따르면[18] 인간의 지능은 일곱 가지로 나누어 볼 수 있으며 이 가운데 언어적 지능은 언어와 관련된 활동에 민감하고 언어적 문제를 해결하는 능력으로 정의하고 있다. 따라서 언어적 지능이 우수한 경우에 언어적 창의성이 뛰어나다고 주장하고 있다. 언어창의성 교육은 국어과 교과내용과 관련을 갖고 국어교육의 맥락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할 수 있다. 국어교육에서는 언어활동은 창의성이나 지능과 불가분의 관계를 맺고 있는 것으로 주장하고 있으나 영역간의 관련성에 대한 경험적인 연구가 실시될 필요가 있다. 국어교육은 창의적인 과정을 다루고 있으며 이러한 다양한 활동들은 창의성과 밀접하게 연결되어있다는 주장[19] 역시 실제적인 경험적인 연구가 제시되고 있지 않다.

이상에서와 같이 언어창의성에 있어서 언어지능과 국어성적과 일반창의성 간의 관련성을 살펴보는 일은 교육현장에서의 교수학습에 있어 접근방향을 제시해 줄 것이며 언어지능과 언어창의성의 상관을 주장하는 이론에 대한 경험적 자료가 될 것이다. 또한 현재 우리나라의 국어과 수업에서 일어나고 있는 창의성교육과의 연결성에 대한 시사점이 제공될 것이라고 생각된다.

본 연구에서는 초등학생들의 일반창의성 및 그 하위요인들과 국어성적, 언어지능과 언어창의성이 어떠한 관련이 있는지를 밝혀보고 그 설명력을 알아보고자 한다. 연구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구체적으로 다음과 같은 연구문제를 설정하였다.

1. 초등학생들의 언어적 지능, 국어 성적, 일반창의성(유창성, 독창성, 제목의 추상성, 정교성)과 언어창의성과의 관계는 어떠한가?
2. 초등학생들의 언어적 창의성을 가장 잘 설명하는 변인은 무엇인가?

2. 연구 방법

2.1 연구 대상

본 연구 대상은 서울시에 소재한 3개의 초등학교에서 4학년 학생을 대상으로 임의로 선정된 12개 학급의 360명을 대상으로 검사를 실시하였다. 검사는 연구자와 교사의 협의 하에 학급별로 아동에게 직접 검사를 실시한 뒤 회수하였다. 응답 자료는 무성의한 응답자를 제외하고 총 338(남:161 여:177)부의 자료가 수집되었다

2.2 측정 도구

2.2.1 일반창의성 검사

Torrance에 의해 개발된 TTCT 도형검사(Torrance Test of Creative Thinking)는 창의성의 인지적 사고능력을 측정하는 검사도구로 A형 검사는 3개의 활동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활동 1은 그림 구성하기, 활동 2는 그림 완성하기, 활동 3은 선 더하기로 구성되어 있다. 각 활동의 제한시간은 10분이다. 유창성, 독창성, 제목의 추상성(이하 추상성), 정교성 점수를 표준점수로 환산하여 합한 점수를 해당 아동의 창의적 사고능력 점수로 사용하였다. Torrance 창의적 사고력 검사의 도형검사에 대한 타당도는 구인타당도, 예언타당도, 공인타당도, 내용타당도가 선행연구들인 Alieldin[20], Mourad[21], Torrance[4], Torrance와 Wu[22] 등에 의해 산출되어 보고되었다($r=.22\sim.76$). 본 검사에서의 신뢰도는 .54-.68로 나타났다.

2.2.2 언어창의성 검사

본 연구에서 사용된 언어창의성 검사는 정형화되어 있지 않은 발견적(heuristic)과제를 제시하고 창의적인 수행을 측정하는 몇 가지 과제중의 하나인 그림을 보여주고 '이야기 꾸미기' 과제를 실시하였다. 이는 Amabile[23, 24], Hennessey와 Amabile.[25, 26]에 의해 꾸준히 연구되어 온 언어적 창의성을 측정하는 과제 가운데 하나이다.

언어창의성 측정기법으로 사용한 Hennessey와 Amabile[26]은 '합의적 측정 기법(CAT; Consensual Assessment Technique)'은 창의적인 면을 측정하는 독창성 점수와 최소한 기술적인 측면(technical goodness), 심미안적 호감(aesthetic appeal), 적합도(appropriate)를 측정하는 적절성을 각각 5점 척도로 측정한다. 산출물의 창의적인 수행수준을 점수화하는 방법은 Zhou와 Oldham[27]는 독창성과 적절성의 두 가지 차원들을 서로 곱하여 하나의 단일 지표(a single index)로 사용하였으며 점수의 범위는 1점에서 25점이다. 김혜숙과 최인수[28], Zhou와 Oldham[27] 그리고 Mumford, Feldman, Hein 와 Nagao[29] 등의 연구에서 사용되었으며 채점자간 신뢰도는 일치성의 정도(Cronbach's α 계수)는 .7이상이면 신뢰롭다고 하였다.

본 연구에서 한편의 에세이는 동화작가, 초등학교교사, 중등학교 국어교사에 의해 채점되었으며 이들의 평균 점수를 사용하였고 측정자간 신뢰도는 .79로 나타났다.

2.2.3 언어지능 검사

Shearer[30]에 의해 개발된 아동용 다중지능발달 평가 척도(Young Child Multiple Intelligences Development Assessment Scale: MIDAS for KIDS)를 정태희[31]가 번안 수정하여 한국아동에게 타당화한 것을 사용하였다. 이 검사는 언어적 지능, 논리-수학적 지능, 신체-운동적 지

능, 음악적 지능, 공간적 지능, 대인관계 지능, 개인 내 지능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신뢰도는 .73~.88 수준이다. 본 연구에서는 언어 창의성 측정과 관련이 있다고 판단되는 언어 지능 영역의 12문항을 실시하였다. 원검사의 신뢰도는 .73 이었으며 본 연구에서의 신뢰도는 .76으로 나타났다. 각 문항은 6점 Likert 척도로 이루어져있다.

2.2.4 국어성적

국어성적은 각 학교에서 실시한 중간, 기말 성취도 검사에서 국어 과목의 평균점수를 각 학교별로 Z점수로 환산하여 사용하였다.

2.2.5 자료 분석

자료 분석을 위해 사용된 통계프로그램은 SPSS 18.0 이었다. 일반창의성, 언어지능, 국어성적, 언어창의성의 경향성을 알아보기 위하여 기술 통계를 산출하고, 상관과 설명력을 알아보기 위하여 pearson 상관분석, 단계적 다중회귀분석(multiple stepwise regression)을 실시하였다. 설명력이 높은 변인을 수준별로 나누어 평균의 차이를 알아보기 위하여 ANOVA 분석과 Scheffé 사후검증을 실시하였다.

3. 연구결과 및 해석

3.1 일반창의성, 언어지능, 국어성적, 언어창의성에 대한 기초통계

일반창의성과 언어지능, 국어성적과 언어창의성에 대한 반응경향을 알아보기로자 기술 통계분석을 실시하였다. 각 측정변인들의 평균과 표준편차와 점수의 분포를 구하였고 그 결과는 Table 1에 제시된 것과 같다.

[Table 1] Descriptive statistics of Domain-general creativity, Linguistic intelligence, Korean language grade and Linguistic creativity

(N=338)				
factors	Min	Max	M	SD
fluency	4	99	70.46	26.08
originality	1	99	57.90	29.60
abstract	1	99	40.10	28.35
elaborate	1	94	33.84	19.02
creativity	8	96	50.52	18.50
Linguistic IQ	1	5.58	2.69	.79
Korean Grade	39	100	86.94	10.50
Linguistic Creativity	1	25	7.78	4.56

일반창의성의 하위요인별 점수의 평균을 살펴보면 유창성(M=70.46, SD=26.08), 독창성(M=57.90, SD=29.60)이 상대적으로 높은 점수를 나타냈으며, 추상성(M=40.10, SD=28.35)과 정교성(M=33.84, SD=19.02), 은 50점 미만의 점수를 나타냈다.

3.2 일반창의성, 언어지능, 국어성적, 언어창의성 간의 상관관계

첫 번째 연구문제인 일반창의성, 언어지능, 국어성적, 언어창의성 간의 상관관계를 알아본 결과는 Table 2에 제시되어 있다.

일반창의성은 언어창의성(r=.20, p<.01)과 상관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위요인들을 살펴보면 추상성(r=.27, p<.001), 정교성(r=.21, p<.01)과 정적상관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어성적은 언어창의성(r=.17, p<.05)과 상관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어성적은 또한 일반창의성과 상관이 있었으며 그 하위요인들(r=.15 ~ .21, p<.05)과도 정적인 상관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언어지능은 일반창의성과 언어창의성과 의미있는 상관이 나타나지 않았다. 이러한 결과는 언어창의성은 언어지능보다 일반창의성과 국어성적과 긴밀한 연관성이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해석할 수 있다. 즉, 언어를 활용하여 창의적인 사고를 하는 능력은 일반적으로 다양하고 기발한 생각을 하는 능력이나 그림을 보고 제목을 생각하는 능력, 구체적으로 아이디어를 발전시켜나가는 능력과 매우 밀접한 관련성이 있음을 알 수 있다.

[Table 2] Correlations of Variables

	1	2	3	4	5	6	7
1.Fluency	1						
2.Originality	.74***	1					
3.Abstractness	.046	.17**	1				
4.Elaborate	.23***	.30***	.39***	1			
5.Creativity	.76***	.83***	.59***	.61***	1		
6.Linguistic Creativity	.023	.105	.27**	.21**	.20**	1	
7.Korean Grade	.10	.17*	.15*	.20**	.21***	.17*	1
8.Linguistic IQ	.01	-.02	.03	.04	.02	.10	.10

* p<.05 **p<.01 ***p<.001

3.3 언어창의성에 대한 일반창의성, 언어지능, 국어성적의 설명력

다음으로 두 번째 연구문제인 일반창의성, 언어지능,

국어성적의 언어창의성에 대한 설명력을 알아보았다. 이러한 변인들이 언어창의성에 영향력이 있는지를 알아보기 위해 회귀분석을 실시한 결과는 다음 Table 3과 같다. 언어창의성을 설명해주는 요인으로는 일반적창의성의 하위요인인 추상성 요인이 9.1%를 유의하게 설명해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도형을 이용하여 그린 그림을 보고 적절한 제목을 붙이는 능력은 언어를 이용하여 독창적이면서도 적절하게 이야기를 만들어가는 언어창의성을 의미있게 설명해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Table 3] Multiple regression of Variables for linguistic creativity

dependant Variable	step	Independa ntVariable	β	R ²	correct R ²	F
Linguistic Creativity	1	Abstract-ness	.311***	.097	.091	18.809***

***p<.001

3.4 추상성 수준에 따른 언어창의성 차이

언어창의성에 유의미한 설명력을 보이는 추상성 수준에 따른 언어창의성에 차이가 있는지 알아보기 위하여 추상성 점수의 평균을 기준으로 표준편차 ± 1 수준에 따라 상중하위 세 집단으로 나누어 집단 간에 언어창의성 점수에 따른 차이를 살펴보았다. 분산분석과 사후검증을 실시한 결과는 다음 Table 4, Table 5와 같다.

집단 간의 언어창의성 점수에 대한 분산분석을 실시한 결과, 추상성을 기준으로 상중하위 3개의 집단 간에는 언어창의성(F=4.711, p < .05)에 있어서 의미있는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사후분석을 실시한 결과 상위 그룹이 중위, 하위 그룹보다 의미있게 높은 언어창의성 점수를 나타내는 것으로 나타났다. 언어창의성은 자신이 흥미와 관심을 갖고 그린 도형그림에 대하여 적절한 제목을 붙이는 추상성의 능력에 따라 의미있게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추상성은 중요한 요인으로서 언어창의성을 설명력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Table 4] Linguistic creativity among Abstractness of title Level

	N	M	SD
high	36	10.34	4.96
middle	236	7.74	4.65
low	66	6.74	3.37
Total	338	7.82	4.54

[Table 5] ANOVA of Linguistic creativity

	SS	df	MS	F	P	Scheffé
Between-G	187.686	2	93.843	4.711	.010	상위>중위
Within-G	4004.034	201	19.921			
Total	4191.719	203				상위>하위

4. 결론 및 논의

창의적인 능력이 일반적 영역인지 특수한 영역인지에 대하여 여러 가지 의견들이 제시되고 있지만 이를 경험적으로 살펴본 연구들은 매우 부족한 실정이다[32]. 본 연구는 초등학생들의 일반창의성, 언어지능, 국어성적과 언어창의성 간의 관련성을 살펴보고 언어창의성에 이러한 변인들이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살펴보고자 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초등학생 338명을 대상으로 일반창의성, 언어창의성, 언어지능을 검사하고 학교에서 실시된 학업성취도의 국어성적을 수집하여 SPSS 18.0 프로그램을 활용하여 관계성과 설명력을 분석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초등학생들의 언어창의성은 일반창의성 전체점수와 정적상관이 있었으며, 하위요인에서는 추상성과 정교성이 상관이 있었다. 일반창의성과 언어창의성은 상호 독립적인 것이 아니라 상호 관련적이라고 할 수 있다. 언어창의성과 일반창의성이 상관이 있다는 것은 언어창의성에 일반창의적인 사고요인이 포함되어 있음을 시사한다고 볼 수 있다. Sternberg[15]는 창의력이란 완전히 영역 일반적이지도 않으며 영역 특수적인 것도 아님을 주장하였으며 김영채[13]는 언어검사와 도형검사의 상관을 비교하여 높지 않은 상관을 제시하며 비슷한 결과를 도출하였다. Bear[11]는 시쓰기, 이야기쓰기, 수학퍼즐 등의 과제에서 나타나는 창의성이 차이가 있음을 제시하였으며 Runco[33]는 같은 아동이 제시한 예술작품들 사이에서도 상관이 낮음을 발견하였다.

둘째, 초등학생들의 언어창의성은 국어성적과 정적상관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언어지능과는 의미있는 상관이 나타나지 않았다.

이러한 결과는 새롭고 독특한 생각을 하거나 다양하게 생각하는 능력 등의 일반창의성은 언어를 활용하여 남과 다른 기발한 이야기를 만들며 이러한 내용이 적절하게 이루어지는 능력과 상관이 있음을 알 수 있다. 언어창의성 발달을 위해서는 국어수업과 관련된 창의적 사고기법을 같이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수업방법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된다. 창의적인 언어활동은 타인들의 말이나 글들을 사용하여 개개인이 의미를 창조해 가는 과정으로 기

본적인 언어능력의 습득과 이해는 언어창의성에 영향을 주며 이러한 언어적 숙달은 기본적인 능력으로 간주된다. 또한 새롭고 다양한 방식으로 응용하여 사용하는 창의성의 기본능력 또한 창의적인 의미를 확장하는 사고과정을 돕는 결과라고 할 수 있다. 언어의 기능별 특성과 언어사용은 창의적인 사고기법과 만나 언어분야의 창의성을 표현하도록 할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국어교과에서도 언어활동과 창의성과는 불가분의 관계를 맺고 있으며 국어교과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언어활동은 창의성과 결코 별개의 것이 아니다. 그러므로 국어교육은 창의성에 관련된 개념정립이 이루어지고 지도방법이 창의성 발현과 관련된 내용으로 검토되어야 할 것이다. 언어창의성이 언어지능과 상관이 없다고 나타난 결과는 일반적으로 지능과 창의성과의 상관을 연구한 선행연구들에서 두 영역 간의 낮은 상관을 제시하거나 상관이 없다고 제시한 연구결과와 일치한다고 할 수 있다.

셋째, 언어창의성을 가장 잘 설명해주는 변인으로는 일반창의성의 하위요인인 추상성 이었다. 추상성의 수준에 따라 상중하위 그룹으로 나누었을 때 상위그룹은 중위, 하위그룹보다 의미있게 높은 수준임을 확인할 수 있었는데 자신의 작품에 이름을 붙이는 능력은 언어창의성을 가장 잘 설명하는 능력임을 알 수 있었다.

이와 같은 결과에서 창의적 수행은 영역 일반적인 요인과 영역 특수적인 영역이 모두 포함된다고 할 수 있다. 산악자전거를 능숙하게 타는 사람일지라도 시작은 누구나 시작하는 세발자전거에서 시작한다는 사실이나 미술의 대가일지라도 시작은 끄적거리거나 낙서하기 단계를 거쳐서 만장 이상의 모방의 습작시간을 거친다는 사실을 생각한다면 창의성의 발현은 일반적인 창의성 요인을 학습하면서 점점 특수한 영역으로 발전시켜 나간다는 것을 알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창의적 수행의 잠재력은 영역 일반적인 요소를 지니고 있다고 할 수 있다. 대부분의 전통적 창의성 이론들은 영역보편성을 전제로 하고 있는데 이들은 영역 특수적인 연구들이 보여주는 제한점을 보완해 줌으로써 더욱 완전하게 창의성을 발현하도록 돕는다.

본 연구의 결과는 서울지역의 초등학생들만을 대상으로 실시되었으므로 일반화하기 어려울 수 있으며 광범위한 지역의 표집을 하여 지속적인 연구를 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또한 특수한 영역에서 성공적으로 창의성을 수행하는 사람들의 영역특수한 창의성과 일반창의성에 대한 연구가 실시된다면 영역성에 대한 관계성을 분석해보는 실증적인 연구도 필요할 것으로 생각된다.

References

- [1] Hills, T.W., Children in the fast lane: Implications for early childhood policy and practice. *Early Childhood Research Quarterly*, 2(3), 265-273, 1987.
DOI: [http://dx.doi.org/10.1016/0885-2006\(87\)90035-4](http://dx.doi.org/10.1016/0885-2006(87)90035-4)
- [2] Guilford, J. P., Some misconceptions regarding measurement of creative behavior, *The Journal of Creative Behavior* 5, 77-87, 1971.
DOI: <http://dx.doi.org/10.1002/j.2162-6057.1971.tb00877.x>
- [3] Torrance, E. P. The Torrance Tests of Creative Thinking streamlined (revised) manual Figural A and B. Bensenville, IL: Scholastic Testing Service. 1984.
- [4] Cramond, B. Morgan, J., Bandalos, D., & Li, Z., A Report on the 40-Year Follow-Up of the Torrance Tests of Creative Thinking: Alive and Well in the New Millennium. *Gifted Child Quarterly* 49(4), 283-291, 2005.
DOI: <http://dx.doi.org/10.1177/001698620504900402>
- [5] Kaufman, J. C., *Creativity 101*. [Kim, J. H trans.] Seoul: Sigma Press, 2010.
- [6] Kaufman, J. C., Plucker, J. A., & Baer, J., *Essential of creativity assessment*. New York: John Wiley & Sons, 2008.
- [7] Runco, M. A., *Creativity theories and themes: Research, Development, and practice*. San Diego, CA: Academic Press. 2007.
- [8] K Muis, L Bendixen, F Haerle, Beliefs About Knowledge and Knowing: Integrating Domain Specificity and Domain Generality, *Psychology Review*, 18(1), 67-76, 2006.
DOI: <http://dx.doi.org/10.1007/s10648-006-9000-9>
- [9] Baer, J., & Kaufman, J.C., Bridging Generality and Specificity: The Amusement Park Theoretical (APT) Model of Creativity. *Roeper Review*, 27, 158-163, 2005.
DOI: <http://dx.doi.org/10.1080/02783190509554310>
- [10] Guilford, J. P. "Creativity", *American Psychologist*, 5, 444-454. 1950.
DOI: <http://dx.doi.org/10.1037/h0063487>
- [11] Baer, J. "The case for domain specificity of creativity" *Creativity Research Journal*, 11(2), 173-177. 1998.
DOI: http://dx.doi.org/10.1207/s15326934crj1102_7
- [12] Han, K. & Marvin, C., Multiple creativities?: Investigating domain-specificity of creativity In young children. *Gifted Child Quarterly*, 46(2). 98, 2002.
DOI: <http://dx.doi.org/10.1177/001698620204600203>
- [13] Kim, Y. C., The Domain-general vs Domain-specific:

- Related issues and Analysis of the Torrance's TTCT-verbal and TTCT-figural Test, *Thinking Development*, 8(1), 1-29, 2012.
- [14] Sternberg, R. J. & Lubart, T. I. *Defying the crowd: Cultivating creativity in a culture of conformity*. NY: Free Press, 1995.
- [15] Sternberg, R. J., *Successful intelligence*. New York, NY: Simon & Schuster, 1996.
- [16] Amabile, T. M., The social psychology of creativity. A Componential conceptualization.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45(2), 357-376, 1983.
DOI: <http://dx.doi.org/10.1037/0022-3514.45.2.357>
- [17] Hennessey, B. A. & Amabile, T. M., Product creativity: Consensual assessment technique. In R. T. Brown (Chair), *Measurement of creativity: Process and product*. Symposium presented at the meeting of the American Psychological Association, Atlanta, 1988.
- [18] Gardner, H., Human intelligence isn't what we think. *U. S. News and World Report*, pp.75-78 Gardner, 1984
- [19] Kim, C.H., & Han, S. H., Conceptive research of linguistic originality, *Educational advanced Study*, 4(1), 21-47, 2006.
- [20] Alieldin Mohamed T. Torrance Indicators of Creative Thinking: A Development Study. University of Georgia. 1978.
- [21] Mourad, E. H., Integral representations and complete monotonicity of various quotients of Bessel function. *canadian Journal of mathmetics*, 29(6), 1198-1207, 1976.
DOI: <http://dx.doi.org/10.4153/CJM-1977-119-5>
- [22] Torrance, E. P., & Wu, T. "A comparative longitudinal study of the adult creative achievements of elementary school children identified as highly intelligent and as highly creative" *Creative Child and Adult Quarterly*, 6, 71-76. 1981.
- [23] Amabile, T. M., Motivation and creativity: Effects of motivational orientation on creative writers.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48, 393-399. 1985.
DOI: <http://dx.doi.org/10.1037/0022-3514.48.2.393>
- [24] Amabile, T. M., *Creativity in context: Update to the social psychology of creativity*. Boulder, CO: Westview Press, 1996.
- [25] Hennessey, B. A. & Amabile, T. M., Reward, intrinsic motivation, and creativity. *American Psychologist* 53(6), 674-675, 1988.
DOI: <http://dx.doi.org/10.1037/0003-066X.53.6.674>
- [26] Hennessey, B. A. & Amabile, T. M., Consensual assessment. In M. A. Runco & S. R. Pritzker (Eds.), *Encyclopedia of Creativity*, Oval Road, London: Academic Press 347-360, 1999.
- [27] Zhou, Zing & Oldham, G. R., Enhancing Creative performance: Effects of Expected Developmental Assessment Strategies and Creative Personalities. *The Journal of Creative Behavior*, 35(3), 151-167, 2001.
DOI: <http://dx.doi.org/10.1002/j.2162-6057.2001.tb01044.x>
- [28] Kim H.S., & Choi, I.S., A Structural Model for Creativity, *Educational psychology*, 16(4), 229-245, 2002.
- [29] Mumford, M. D., Fieldman, J. M., Hein, M. B., Nagao, D. J. (2001). Tradeoffs Between Ideas and Structure: Individuals Versus Group performance in Creative Problem solving. *The Journal of creative Behavior*, 31(4), 260-271. 2001.
- [30] Shearer, C. B. (1996). *Multiple Intelligences developmental assessment scales(MIDAS)*. United States of America : Author.
- [31] Jung, T. H., *Teaching-Learning Activities Development Based on Multiple Intelligences Theory and Its Effects : Focusing on Personal Intelligences*, Unpublished Doctor dissertation, University of Hanyang, 1998.
- [32] Torrance, E. P., & Safter, H. T., The long range predictive validity of the Just Suppose Test. *Journal of Creative Behavior*, 23, 219-223. 1989.
DOI: <http://dx.doi.org/10.1002/j.2162-6057.1989.tb00696.x>
- [33] Runco, M. A., McCarthy, K. A. & Svensen, E., Judgement of the creativity of artwork and students and professional artists. *Journal of Psychology*, 128. 23-31, 1994.
DOI: <http://dx.doi.org/10.1080/00223980.1994.9712708>

박정환(Park, Jung-hwan)

[정회원]



- 1992년 2월 : 원광대학교 교육학과 (문학사)
- 1994년 2월 : 원광대학교 교육학과 (문학석사)
- 2001년 2월 : 한국교원대학교 교육학과 (교육학박사)
- 2004년 9월 ~ 현재 : 제주대학교 교육학과 부교수

<관심분야>

교육방법, 교육공학, ICT, Smart-Education

홍 미 선(Hong, Mi-Sun)

[정회원]



- 2003년 2월 : 제주대학교 법학과 (법학사)
- 2009년 8월 : 제주대학교 교육대학원 교육학석사 (상담심리)
- 2012년 3월 ~ 현재 : 제주대학교 일반대학원 교육학과 박사과정 재학

<관심분야>

교육방법, 교육공학, Smart-Education, 교육코칭, 스마트진로코칭

유 경 훈(Lew Kyoung-Hoon)

[정회원]



- 1992년 2월 : 성신여대 유아교육학과 (문학사)
- 1995년 2월 : 상명대학교 교육학과 (문학석사)
- 2007년 2월 : 상명대학교 교육학과 (교육학박사)
- 2010년 3월 ~ 현재 : 송실대학교 교육대학원 조교수

<관심분야>

아동발달, 창의성교육, 영재교육